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문의	행사/취재 : 이상아 학예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 9. 19.	쪽수	총 3매

백남준아트센터,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 프로그램 'DMZ docs 플러스+' 참여



- ▶ 상영 공간을 경기도 일대로 넓히는 특별 프로그램 'DMZ Docs 플러스+' 참여
- ▶ 독일 카셀 개최 《도큐멘타 14》의 진행 과정을 다룬 디미트리스 아티리디스(Dimitris Athiridis) 감독의 영화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 특별 상영
- ▶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에서 관람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량, 이하 DMZ Docs)의 특별 프로그램 'DMZ Docs 플러스+'에 참여하여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를 상영한다. 'DMZ Docs 플러스+'는 문화 예술 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DMZ Docs의 상영 공간을 고양특례시에서 경기도 일대로 넓히는 확장 상영 프로그램으로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파주시, 안산시 등의 극장, 미디어센터, 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3일간 특별 상영하는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디미트리스 아티리디스(Dimitris Athiridis) 감독의 영화로 《도큐멘타 14》의 기획과 진행 과정, 이를 둘러싼 예술과 제도, 관행의 문제를 다루는 14시간 길이의 다큐멘터리이다. 독일 카셀에서 열리는 《도큐멘타》는 백남준도 참여한 바 있는 미술계의 큰 행사로, 백남준은 1977년 6월 24일 《도큐멘타 6》 개막식에서 요셉 보이스, 샬럿 무어먼과 함께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연에 참여한 바 있다.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는 《도큐멘타 14》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아담 심지크와 그의 학예팀이 2년에 걸친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는 대중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적자 양산 등의 시련을 겪은 《도큐멘타 14》 내부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1955년부터 60년이 넘게 이어져 가장 주목받는 예술계 행사로 여겨지는 《도큐멘타》의 주요 인물들의 열정에 주목하고, 현대 미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낸다. 영화는 총 14장으로 구성되며, 848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을 고려하여 3일간 1편을 나누어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DMZ Docs는 전쟁, 기후위기, 혐오와 불평등이 국제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답으로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을 슬로건으로 설정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한다. 'DMZ Docs 플러스+' 특별 상영작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는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에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부터 상영을 시작하며, 사전 신청 없이 관람 가능하다. 영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별첨.

■ 감독 디미트리스 아티리디스



1962년 그리스 출생. 디미스트리 아티리디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한다. 심층적 연구와 존재론적 탐구를 통해 인물에 접근한다. 대표작으로 그리스 락 뮤지션 테리 파파디나스의 수수께끼 같은 삶을 탐색하는 <T 4 Trouble and the Self Admiration Society>(2009)이 있다.